

buddhanews.com

# 생태 귀농 실천 작은마을 '첫삽'

## 농림부 전원마을 사업지구 선정... 2010 완공

남원 실상사 인근에 생태교육문화 공동체 마을이 세워진다.

‘인드라망이 함께하는 지리산 작은마을’ (대표 도법)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는 4월 25일 실상사 작은학교 대강당에서 남원 ‘백일지구 전원마을’ 기공식을 개최했다.



4월 25일 백일지구 전원마을 기공식에서 귀농 입주자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밝히고 있다.

“지리산 작은마을”로 이름 붙여진 백일지구 전원마을은 2007년 1월, 농림부 전원마을 사업지구로 선정돼 14억 여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실상사 인근의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일대 2만6360㎡(8000여평)에 걸쳐 조성되며 2010년까지 완공돼 20가구 70여 명의 도시민들이 귀농 귀촌해 입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산하 ‘실상사 귀농학교’와 중등과정 대안학교 ‘실상사 작은학교’가 지리산 작은마을이 뜻생명과 상생하는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문화공동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입주민을 도울 예정이다. 도법 스님은 지리산 작은마을 홈페이지 (www.jirisan.org)에서 “실상사, 귀농학교, 작은학교, 한생명 등의 인연으로 이곳에 먼저 정착한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에 이어, 지리산 전원마을에 들어와 살게 될 여러분과의

만남도 기대된다”며 “살다 보면 간헐히 크고 작은 소음이 들리기도하겠지만 스스로 낮추고 비워 나눌 줄 안다면 자신이 바라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법 스님, 실상사 주지 재연 스님, 최종남 남원시장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기공식에서 이강래 국회의원은 “최근 이산화되고 있는 지리산맥의 조성은 남원시와 지리산에는 치명적이다. 남원시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막아나가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종섭 기자 · 조종태 전북지사장

# “공개사과·재발방지” 법당서 이주노동자 단속?

4월 25일 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인천출입국사무소가 단속을 벌인데 대해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회장 보림)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5월 3일 성명서를 통해 “종교시설은 이 사회 소모품인 이주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고 강조하며 “봉축행사 전야 법당에서 연등을 만들던 불자 이주노동자에게 무차별한 단속을 벌인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노덕현 기자



불기 2553년 봉축법요식 봉행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비롯된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이 주관한 서울 조계사 법요식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출·재가 대표자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정관계 인사들, 오스월드 파파라 후원 교회장 대사, 독일·몽골·캄보디아·네팔·우크라이나 대사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글=조종섭 기자, 사진=박재현 기자

# “케이블카 설치 반대합니다” 연관 스님 등 8인 천왕봉서 릴레이 시위



5월 4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릴레이 시위 시작을 알린 지리산 지킴이들. 왼쪽 내 번째 연관 스님, 다섯 번째 종길 스님. 사진제공=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스님을 비롯한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 8명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환경부 케이블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관 스님(前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종길 스님(前 화엄사 주지), 지리산 지킴이 함태식옹, 치발목대피소 지킴이 민병태씨 등은 5월 4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끝나는 24일까지 천왕봉 정상에서 1명 이상이 최남을 이용해 비박야외에서 잠자는 것하는 등 밤낮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로 등산객들에게 환경부의 케이블카 규제 완화 방침과 지지자의 앞다툼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부담감을 알리고, 설치 반대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

연관 스님 등은 이날 릴레이 시위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땀줄인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은 영산으로 보존해야 한다. 생태계 최후 보루인 지리산을 비롯한 산들의 뜻생명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한편, 케이블카 대책위는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지리산 반대쪽 봉우리인 노고단에서 케이블카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케이블카 대책위 측은 노고단뿐 아니라 설악산, 서울 정부중앙청사 등에서 1인 시위와 케이블카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日 평화헌법 제정 한·일가수 콘서트 나눔의집, 불교여성개발원 등과 협약 체결

일본 평화헌법 제정일을 맞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일가수 콘서트를 열어 눈길을 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5월 3일 광주 나눔의집 마당에서 한일가수 조청평 화론콘서트를 개최했다.

5월 3일은 1947년 일본이 전쟁과 오를 반성하며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력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로, 이 내용을 담은 일본 헌법 9조는 ‘평화헌법’으로 불리고 있다.

콘서트에 참가한 일본 가수 60여명은 일본 헌법9조에 멜로디를 붙여 한국말로 노래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지난 아픔을 녹였다. 한국에서는 한영외교와 경희대 공연팀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풍물공연과 비보이 아트를 선보이

는 등 자리를 빛냈다. 2006년 제1회 나눔의집 평화콘서트를 개최하고 반전·반핵 평화운동에도 앞장서온 일본가수 기타가와 테츠(55세)는 “30년 동안 평화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위안부 문제를 접하게 됐다. 많은 일본인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나눔의집은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을 비롯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불교, 여성인권 4개 단체와 여성인권 신장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 여성불자 108인회 김인숙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여성인권활동 공동추진 △전문 자문 협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협력 등을 다짐했다. 노덕현 · 이상연 기자

# 도법 스님 5월 28일부터 ‘승만경’ 강의

생명평화 운동을 벌이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은 5월 28일부터 11월까지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에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여성 부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승만경>을 강의한다.

도법 스님은 참가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여성 출·재가자의

성불과 현대사회의 여성문제를 고찰할 예정이며, 오는 8월에는 전북 남원 인드라망수련원(귀정사)에서 특별강좌 ‘<승만경> 아담법석’도 열 계획이다.

수강료는 7회 모두 수강시 5만원으로 1회 수강비는 1만원. (02)576-1886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 “아시아 아이들에게 학교 지어줍시다”

## JTS · 길벗 명동서 캠페인... 텔런트 배종옥 · 노희경 작가 등 동참

JTS(대표 유수)와 방송 · 영화 연극인 사회봉사모임 ‘길벗’(총무 노희경) · 방송작가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 명동축제 특설무대에서 아시아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기 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텔런트 배종옥을 비롯해, 노희경 작가, 텔런트 김여진 한지민 윤소이 등 JTS홍보대사를 비롯해, 한지승 감독, 최다니엘과 서효림, 전예서, 모델 김영광과 시호 등 길벗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야



아시아 어린이 교육사업에 동참한 JTS 홍보대사 텔런트 윤소이씨와 노희경 작가의 미소가 아름답다. 노덕현 기자

는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캠페인에 참가한 연예인들은 직접 싸인한 JTS과페포 후원엽서, 돼지저금통 1천개를 나누는 등 모금현장에서 시민, 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모금액 전액과 12월 19일까지 돼지저금통으로 모아지는 성금은 인도 등게스라리와 필리핀의 만다나오 지역 등 아시아 오지 마을에서 JTS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영천만불사 방생법회 & 팔공산 갓바위 기도회

성불하십시오. 아름다운사찰 영천만불사 용천지에서 방생법회행사와 신비한 갓바위 부처님을 뵈는 행사로 불교기업체인 한국영농조합의 후원으로 단돈 10,000에 준비 하였습니다.

**최신형관광버스왕복+아침·점심공양+방생법회+팔공산 ₩10,000**

- ▶출발일 및 장소 : 원하시는 날짜와 원하시는 장소에 출발가능(30명이상)
- ▶오전8시출발~차내에서 찰밥으로 아침식사~협찬사(30분간)~영천만불사도착~방생법회행사 및 사찰답사~점심공양~팔공산 갓바위
- ◆ 만불사 방생법회코스외 에도 경주감포·충주호·동해추암.. 등 다른지역 방생행사도 가능합니다.

**동학사 · 갑사 · 계퇴사**

₩ 25,000원

매주토요일 출발

오전8시출발~차내조식~동학사~중식~갑사~계퇴사~도착

**승광사 · 선암사 · 쌍계사**

₩ 25,000원

매주토요일 출발

오전8시출발~차내조식~승광사~중식~선암사~쌍계사~도착

**(주)SK투어 불교사업단 ☎1644-9446**